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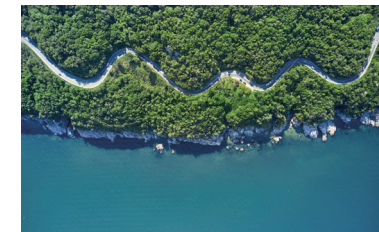
### 다시 봄, 다시 바다

#### Talk of the Sea

04

포토 海세이

바다, 봄을 꽃피우다



08

에코 트래블

진정 바라던 바다

인천 신시모도

14

플레이존

너무 황홀海! 너무 짜릿海!

선상의 파라다이스

18

바다를 품은 식탁

오동통 쫄깃쫄깃~

제철 주꾸미가 나가신대!

#### Playing by the Sea

20

KOMSA 스테이지

행복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진심

안전을 가슴 깊이 새긴 인천지사

26

KOMSA와 함께

안전은 목표로,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긴밀한 협력으로 성장 이룬 대부해운

30

슬기로운 바다생활

안전한 바다낚시를 위한

낚시어선 이용 가이드

32

바다 옆 박물관

해양 생태계의 비밀을 풀어가다

씨큐리움(SeaQrium)



34

바다를 부탁해

바다를 지키는 기술,

페어망 리사이클링

36

바다 큰 사전

깨끗한 해양환경을 위한 선택,

친환경 선박은 무엇일까?

#### Chorus for the Sea

38

KOMSA 브레이크 타임

반려식물에게도 사랑이 필요해요~

본사 직원들의 '가드닝 클래스' 체험



42

줌인 KOMSA

발 빠른 대응으로

안전한 바닷길 지켜갈 것!

당진지사 개소식

46

스마트한 KOMSA

중소형 선박 안전,

이제 우리에게 맡기세요!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48

KOMSA 뉴스 라운지

49

KOMSA 네트워크

50

함께海요

이벤트

발행인 김경석 이사장  
발행일 2022년 4월 29일(통권 49호, 비매품)  
발행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27(아름동)  
전화 044-330-2380  
홈페이지 www.komsa.or.kr  
기획·디자인·인쇄 (주)케이에스엔씨이션  
표지 일러스트 이신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교통안전 확보로 안전한 바다를 만들고, 고객의 행복을 지켜나갑니다.

<해안선>에 기재된 내용 일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안선>에 게재된 글과 사진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바다, 봄을 꽃피우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바다가 다시 일렁이기 시작한다.  
길고 긴 겨울을 지나 우리 곁에 다시 찾아온 봄.  
바다와 함께 피어나는 봄의 풍경을 따라간다.

Text. 최미혜 Photos Provided. 남해군청





## 바다와 계절이 만나는 곳, 남해에서

산과 바다 사이, 구불구불한 도로가 끝없이 이어진다.

따사로운 햇살이 에메랄드빛 바다 위로 부서지고, 봄기운을 머금은 바람이 풀잎 위로 스쳐 지나가는 시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봄이 시작되는 곳, 남해.

그곳에 물미해안도로가 자리한다. 남해군 삼동면에서 미조면 미조항으로 이어지는 약 20km의 해안도로.

물미해안도로는 물건리부터 은점마을, 대지포, 향도마을 등 해안도로에 인접한 마을의 아름다운 풍광과 바다의 조화로 여행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그 시작점에는 해안을 촘촘하게 둘러싼 물건방조어부림이 있다. 바다의 염해로부터 논밭을 지키기 위해 조성된 숲이다.

느티나무, 이팝나무, 팽나무, 상수리나무 등 수령 300년이 넘는 2,000여 그루의 나무가 계절의 변화를 오롯이 드러낸다.

아무런 기척 없이 봄이 지나칠세라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굽어진 해안도로와 수평을 이룬 바다를 가만히 내려다보면 그 위로 평화로운 어촌마을의 정취와 낭만이 조용히 흘러가니까.

바다와 산이 맞닿은 이곳에 봄이라는 꽃이 피어난다.

물결마다 새로운 생명이 넘실대고, 바다의 푸르름이 수채화처럼 번져 산을 물들인다.

바다와 산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봄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해안누리길,

물미해안도로가 자리한 남해에서 바다의 싱그러움을 느껴본다.





# 진정 바라던 바다 인천 신시모도

신도, 시도, 모도가 연결된 삼형제 섬을 차로 달리다 풍경에 이끌려 차를 멈춘다.  
에메랄드빛 바다 위를 오가는 배와 바람을 가르며 하늘을 나는 갈매기, 그리고 아득하게 이어지는 수평선.  
누구라도 붉은빛의 노을 진 이곳의 바다 풍경을 보았다면, 하룻밤 더 머물렀을 것이다.  
수식어가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찬란하기 그지없는 신시모도의 풍경. 가만히 넋을 잃고 바라본다.

Text. 박영화 Photo. 정우철



**벧길 따라 십분 만에 도착한 섬**

햇살도 바람도 공기도 더없이 완벽한 4월의 어느 봄날. 삼목선착장에는 영종도 북도면으로 가려는 차들이 줄을 서서 출항을 기다리고 있다. 벧고동 소리를 내며 여객선이 서서히 바다로 미끄러져 나갔다. 육지에서 바다를 건너 섬에 이르는 시간은 십분 남짓.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여객선이 신도선착장에 도착했다.

신도(信島), 시도(矢島), 모도(茅島)는 각각 다른 섬이지만 연도교로 연결되면서 삼형제섬으로 불린다. 그중 가장 먼저 만나는 섬, 신도. 신도 주민들은 섬에서 생산된 소금 등을 육지에 내다 팔 때 양을 속이지 않고, 착하고 신의가 있다고 해 '믿을 신(信)'이 지명에

쓰이면서 '신도(信島)'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괜히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반갑게 느껴졌다.

섬 크기가 크지 않으니 섬 전체를 둘러봐도 좋는데, 관광안내 책자에 표시된 일주도로를 따라 드라이브했다. 아담하게 솟은 구봉산을 가운데 두고 바닷가를 따라 이어지는 도로. 섬 드라이브는 어떠한 소음 없이 오로지 자연의 소리만 들릴 뿐이다. 아, 경치 좋은 곳에 펜션이 들어서느라 공사가 한창인 곳이 간혹 있긴 했지만.

신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명소는 구봉산이다. 해발 179m의 북도면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경사가 완만해 힘들이지 않고도 오를 수 있다. 4월 중순부터는 벧나무와 진달래꽃이 만발하여 장관을 이룬다.



①

66

아담하게 솟은 구봉산을 가운데 두고 바닷가를 따라 이어지는 도로. 섬 드라이브는 어떠한 소음 없이 오로지 자연의 소리만 들릴 뿐이다.

99



②

- 1 신도선착장으로 가는 여객선
- 2 산책로를 따라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는 신도 수변공원

신도를 소개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신도 수변공원이다. 수문을 통해 들어온 바닷물이 타원형의 수변 산책로를 형성한 것. 탁 트인 서해바다를 바라보며 걷는 기분이 꽤 상쾌하다.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수변 산책로는 20~30분이면 걸기에 충분하다.

**이국적인 풍광의 수기 해변**

신도에서 시도를 가기 위해 지나야 하는 연도교. 연도교를 지나려는데 갓 구운 빵처럼 부풀어 오른

갯벌에 시선이 멈춘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펼쳐진 새로운 세상. 갯벌이 숨을 내쉴 때마다 바지락 등 해양생물들이 함께 호흡하며 모습을 드러낸다. 신도가 한적한 섬마을의 풍경이었다면, 시도는 북도면의 행정 중심지다. 면사무소와 우체국, 파출소, 종합운동장 같은 주요 시설이 이곳에 몰려 있다. 연도교를 건너자마자 오른쪽 길로 들어서면 염전이 나온다. 새하얀 소금 대신 바닷물이 채워져 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소금의 결정이 곳곳에 생기고 있었다. 요즘은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다. 그렇게 10분





③

정도 염전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은 뒤에 다시 길을 나섰다.

시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수기 해변이다. 이곳은 고운 백사장과 소나무숲, 해변을 따라 설치된 그늘막 덕분에 피서지로 유명한데, 평일 낮의 한적함 때문인지 어느 외국의 해변처럼 이국적인 풍광이 느껴졌다. 사실 수기 해변은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해졌는데, 드라마 <풀하우스>와 <슬픈 연가>의 촬영지였다. 드라마 방영 이후 한동안 관광객이 몰려 몸살을 앓았지만, 세월이 흘러 지금은 바닷가의 팻말만이 이곳이 드라마 세트장이었음을 알려줄 뿐이다.

### 바다와 어우러진 예술작품

마지막 섬은 모도다. 삼형제 섬 중 가장 작은 섬. 모도에 가면 꼭 들르는 곳이 박주기다. 지형이 박쥐처럼 생겨서 붙은 지명인데, 박주기의 'Modo'라는 글자로 만든 빨간색 조형물은 인증샷을 남기기 위한 필수 장소다. 역시나 조형물 앞에 세 팀이나 줄을 서고 있었다. 선착장에서 모도까지 오는 내내 사람 구경을

④



⑤



- 3 바닷물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조용히 숨쉬는 갯벌
- 4 이국적인 풍광으로 유명한 수기 해변
- 5 연도교 너머에 펼쳐진 염전의 모습
- 6 모도를 상징하는 조형물 'Modo'
- 7 초현실주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배미꾸미 조각공원

거의 하지 못한 걸 생각하며 이곳의 인기를 실감했다. 박주기에서 모도리 해안 돌레길을 따라 걸으면 얼마 안가 배미꾸미 조각공원이 나온다. 배미꾸미는 땅이 배 밑구멍처럼 생겼다는 의미로, 공원 이름도 이 의미로 지어진 것이다. 지난 2003년 모도로 여행을 왔던 조각가 이일호 작가가 황량한 해변 풍경에 반해 이곳에 작업실을 냈고, 완성한 작품을 하나씩 마당에 전시하면서 완성된 장소다. '초현실주의'를 지향하는 이일호 조각가의 작품이 바다와 어우러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은 '버들선생'. 작품에는 제목이나 설명이 따로 없었는데, 공원 내 카페 주인에게 물어 알게 된 것이다. 특히 만조 때 작품 아랫부분이 물에 잠겨, 마치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낮과 다른 장면을 보여준다.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하늘과 바다를 물들이기 시작했다. 그 위를 심 없이 날아오르는 비행기에 잠시 시선을 빼앗긴다. 어느새 버들선생도 바닷속에 잠겨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풍경이 낯설고 설렌다. 그것이 지금 이 섬에 온 이유다. 🌊

⑥



### Info

**가는 길** 삼목선착장에서 신도로 가는 배가 오전 6시 50분부터 있고, 신도에서 삼목항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배는 오후 7시 30분이다.(신분증 필수 지참)

**식당** 세 섬을 모두 합쳐 30여 곳의 식당이 있다. 소라비빔밥, 낙지볶음, 바지락칼국수, 회, 매운탕 등이 인기 메뉴다.

⑦





# 너무 황홀海! 너무 짜릿海!

## 선상의 파라다이스

‘바다는 풍덩! 빠져야 제맛’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시원한 바닷속으로 들어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짜릿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 하지만 이맘때의 바다는 파도가 잔잔하고, 바람이 좋아 빠지지 않고도 그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특히 선상에서라면, 더더욱.

Text. 임혜경 Photo. 정우철

### 미남크루즈

전남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617-22

[www.minamcruise.com](http://www.minamcruise.com)

※ 예약 및 출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 미남크루즈 타고, 여수 바다를

크루즈를 타고 망망대해를 누리는 상상,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잔잔한 파도 위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모든 근심, 걱정을 잊을 수 있는 크루즈 모험.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다. 바다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여수에서 말이다.

여수 미남크루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연안 크루즈다. 1층 머메이드홀, 2층 레스토랑, 3층 매점과 VIP룸, 4층 바다전망대로 구성되어 있다. 1층 머메이드홀에서는 공연장이 마련되어 있어 시즌별로 다채로운 공연 관람이 가능하고, 2층 레스토랑에서는 바다를 눈앞에 두고 산해진미를 맛볼 수 있다. 오션뷰에서는 무얼

먹어도 맛있는 법. 3층 매점에서는 각종 스낵과 라면, 핫바 등의 간단한 간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미남크루즈의 백미는 단연 4층 바다전망대. 어느 방향에서든 여수 바다를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기에 '바다전망대'라는 단어가 잘 어울린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탑승했다면, 4층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을 남겨보자. 노을 진 바다를 배경으로 찍는 사진은 미남크루즈에서의 시작을 특별하게 해줄 것이다.

### 모든 것이 좋지만, 제일 좋은 건 여수 밤바다~♬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눈부셨다”라는 드라마 <도깨비>의







명대사, 드라마를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알 정도로 유명해진 대사다. 미남크루즈를 타면 이 말이 절로 생각이 난다. 선상불꽃투어, 힐링야경투어, 해상시티투어, 노을야경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미남크루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눈부시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망설임 없이 선상불꽃투어를 추천한다. 해가 저문 아름다운 여수의 야경은 물론이거니와 환호성이 절로 나오는 불꽃쇼는 선택을 후회 없게 해줄 만큼 황홀하다. 특히 선곡에 따라 바다 위에서

터지는 불꽃은 자꾸만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5월, 6월 선상불꽃투어의 출항 시간은 8시. 출항 전에는 탑승객들이 몰려 혼잡하니, 늦어도 30분 전까지는 도착하는 것이 좋다. 예약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자. 현장에서 오후 6시까지 당일 구매가 가능하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약 70분간의 선상불꽃투어를 맘 편히 즐기면 된다. 단, 연로하신 부모님과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탑승객이라면 바닷바람을 막아줄 제법 센 바닷바람과 맞서야 하니깐.



## 여수 밤바다를 누릴 수 있는 선상불꽃투어 코스



## 미남크루즈 안에서 뭐하고 놀면 좋을까?

약 70분 동안 이어지는 선상파티. 지루할 틈 없이 즐길 거리가 많다. 바다를 바라보며 불꽃놀이를 보는 게 핵심이지만, 크루즈 곳곳에 마련된 소소한 재미를 놓치지 말자.

|  |   |  |  |
|--|---|--|--|
| <p><b>Play1</b></p> <p><b>스탬프 찍기</b></p> | <p><b>Play2</b></p> <p><b>매점에서 요기하기</b></p> | <p><b>Play3</b></p> <p><b>포토존에서 사진찍기</b></p> | <p><b>Play4</b></p> <p><b>갈매기 먹이주기</b></p> |
|--|---|--|--|

스탬프북에 미남크루즈 스탬프를 찍고, 제휴 할인 업체를 이용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스탬프는 미남크루즈 3층 VIP룸에 있으니, 참고할 것. 단, 할인은 제휴를 맺은 업체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길 바란다.

3층에 마련된 매점. 스낵과 라면, 만두, 핫바 등의 먹거리와 각종 마실 거리를 판다. 작은 편의점을 크루즈 안에 옮겨놓은 셈이다. 탑승 후 출발까지 기다리는 시간 동안 간단히 요기하기 좋다. 평소 자주 먹던 것들이어도 바다 위에서 먹어서인지 괜히 맛있다.

4층의 포토존. 탑승객들의 소중한 추억을 위해 천사 날개 모양과 하트 모양 등의 조형물을 만들어 놓았다. 사실 포토존이 아니어도 사방이 바다이기 때문에 4층 어디서든 인생사진을 남기는 건 가능하다.

크루즈 위에서 빠질 수 없는 갈매기 먹이 주기! 매점에서 새우깡을 사서 갈매기에게 먹이를 줘보자. 순식간에 먹이를 낚아채는 갈매기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 바다의 보약 주꾸미로 봄철 활력 UP!

봄이면 우리 식탁에 등장하는 반가운 손님, 바로 주꾸미다. 5~6월에 산란을 앞둔 주꾸미는 3월 중순부터 5월까지, 알이 꽉 들어차 가장 맛이 좋다. 제철 주꾸미는 더욱 쫄깃하고 고소한 맛을 자랑하며, 오독오독 씹히는 알의 식감이 더해져 입맛을 돋운다. 주꾸미는 8개의 다리를 가진 문어과의 연체동물로 우리나라 전 연안에 서식하고 있다. 낙지, 문어와 똑 닮은 외형 때문에 언뜻 보면 헷갈리기 쉽지만, 이들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크기다. 문어의 몸길이가 최대 3m, 낙지가 70cm인 것에 비해, 주꾸미는 약 20cm 남짓으로 작은 편이다. 하지만 작은 고추가 매운 법! 세 연체동물이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성분 중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타우린이 있는데, 주꾸미가 낙지의 2배, 문어의 4배가량의 타우린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DHA 등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비교적 칼로리가 낮으며,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있다. 또한 주꾸미 먹물에는 일렉신 성분이 포함되어 암세포 증식을 막아주고, 철분이 많아 빈혈을 예방할 수 있다. 주꾸미를 구입할 때는 머리와 몸통이 탱탱하고 다리의 흡반(다른 동물이나 물체에 달라붙기 위한 기관)이 뚜렷한 것이 좋다. 눈의 금테가 뚜렷하고, 눈알이 맑아야 신선하니 기억해둘 것! 🐙

## 오동통 쫄깃쫄깃~ 제철 주꾸미가 나가신다!

봄에 어울리는 해산물을 떠올린다면 단연 주꾸미다. 알이 꽉 찬 주꾸미를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봄이기 때문이다. 제철을 맞은 주꾸미로 만든 요리를 소개한다. 주꾸미와 봄나물의 특별한 만남.

Text. 최미혜 Photo. 전재천 Food Styling. 김형님

### Recipe

## 쫄깃 상큼! 주꾸미 봄나물 냉채



재료 주꾸미 500g, 달래 50g, 참나물 50g, 방울토마토 8개, 오렌지 1개, 양파 1/3개  
드레싱 올리브오일 2큰술, 발사믹 식초 2큰술, 다진 마늘 1/2작은술, 설탕 1작은술, 소금, 후추 약간씩

①

주꾸미는 밀가루를 뿌려 박박 문질러 씻은 뒤 물로 깨끗이 행군다.

②

주꾸미의 내장, 눈, 입을 제거하고 머리, 두 다리씩 썬다.

③

물에 소금을 넣어 끓인 다음, 주꾸미, 달래, 참나물을 각각 데쳐낸 뒤 찬물로 행군다.

④

데친 달래, 참나물은 3cm 길이로 썰고, 양파는 얇게 채 썬다.

⑤

방울토마토는 꼭지를 떼고 6등분하고 오렌지는 과육만 도려내어 2cm 길이로 썬다.

⑥

정해진 분량의 드레싱 재료를 잘 섞는다.

⑦

모양틀에 달래, 참나물, 양파, 방울토마토, 오렌지를 차곡차곡 쌓은 뒤 모양틀을 빼고 주꾸미를 올린다.

⑧

7에 드레싱을 뿌린다.



# 행복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진심 안전을 가슴 깊이 새긴 인천지사

# Safety

그 무엇도 품을 듯한 광대한 바다는  
시시때때로 모습을 달리하며  
선박들을 맞는다. 때문에 바다에서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선박 검사와 출항 전 검사  
등은 해양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다. 수도권 지역의  
해양 안전을 책임지는 인천지사.  
'안전'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열정을 다하는 인천지사 덕분에 해양  
안전은 언제나 '이상무'다.

Text. 한울 Photo. 고인순

## 수도권 지역의 선박 안전을 책임지다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부터 경기도 화성에 이르기까지, 인천지사는 수도권 지역 선박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선박의 안전이 곧 인천지사의 존립 이유'라는 모토를 세우고, '안벽하고 철저하게'라는 기치 아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이곳은 늘 정과 웃음이 넘쳐난다. '해양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뚝뚝 뚝뚝 일하는 직원들 덕분이다. 정해청 지사장이 먼저 그들의 노고에 대해 이야기했다. "선박 검사는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귀찮고 피하고 싶은 규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간혹 '내 배는 내가 알아서 한다'는 생각으로 잘 응하지 않는 선주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검사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사원은 기술직이기도 하지만 감정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인천지사는 어선 2,300척·일반선 750척·수상레저선 3,400척으로 총 6,500척의 선박을 관리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어선을 비롯해 여객선, 유람선, 유조선 등 각종 선박이 인천을 근거지로 왕래하니 선박 검사의 업무 강도 또한 높다. 최경일 팀장이 수도권 지역의 특징을 설명했다.







“전국 총 19개 지역에 지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곳입니다. 바닷물이 완전히 빠져야 선박 전체를 검사할 수 있는데, 하루 종일 물이 차 있어서 검사 시간을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업무를 해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게다가 수도권은 교통 체증이 워낙 심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른 오전이나 저녁 무렵에 하는 검사가 일상이 된 이들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체하지 않고 현장으로 달려 나간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을 따질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 즐겁고 행복한 조직이 일구는 성과

인천지사는 최근 유·도선의 선령 연장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해 주목받았다. 유선과 도선의 경우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7년부터 강화된 법령으로 선박 검사가 진행되었다. 선령이 오래된 배는 일 년에 한 번씩 조선소에 배를 올리고 엔진을 개방해 구조물 전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했는데, 그 비용이 배에 따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소요돼 선박 소유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선주들이 인천지사를 방문해 심정을 토로하는 일도 잦았다. 정해청

지사장이 당시 일을 설명했다.

“때마침 행정안전부 유·도선 담당 공무원이 인천을 방문하는 일이 생겨 저희가 직접 찾아가 유·도선 선령 연장검사 제도의 불합리한 상황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본사 검사기준실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제출했고, 마침내 2020년 6월 검사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사는 공단 우수사례 경진대회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거머쥐었으며, 2019년과 2021년에는 ‘올해의 KOMSA 부서’에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대해 정해청 지사장은 “내 일, 남의 일 가리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문화, 살갑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는 인천지사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직원들 모두 출근하고 싶고,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문화 덕분에 인천지사가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직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인천지사에서 검사원으로 첫 근무를 시작한 한준희 검사원은 기억에 남는 일화를 소개했다. 어업인 근로 여건 개선과 어선 안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건조기준인 ‘표준어선형’ 제도 도입에 맞춰 제1호 표준어선을 검사했던 일이다. 한준희 검사원은 “제1호

표준어선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선주, 설계사, 조선소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애썼는데요. 제1호 표준어선이 성공적으로 건조돼 인도될 때 어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 것 같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 편리하고 스마트한 서비스 구현으로 고객가치 지향할 것

고객은 점점 편리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지사도 발 빠르게 대응 중이다. 인천지사는 경기도 화성에 별도의 사무소를 개소해 직원들이 주 2회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고객 서비스를 펼치기 위함이다. 현재 인천 남항에 건립 중인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도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인천지사는 바다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도 연 2회 진행한다. 바다는 우리 모두의 터전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정해청 지사장은 “앞으로도 인천지사는 검사원들이 당당하게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최고 수준의 기술 인력이자 중 소형 선박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선박의 안전을 위해 검사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검사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고취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라며 인천지사 수장으로서의 각오를 전했다.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인천지사. 이들의 열정과 노력이 해양 안전을 담보한다.



### Mini Interview



### 인천지사 정해청 지사장

#### 우리가 해양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1998년 입사한 이래 목표지사를 거쳐 16년간 본사 근무를 하고, 인천지사로 발령을 받아 지사 근무는 8년째입니다. 어선들이 안전하게 조업해 만전을 할 때, 수리 비용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는 고객들을 만날 때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키울 수 있었지요. 2019년 8월 인천지사 업무에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무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건 모두 인천지사 직원들 덕분입니다. 저는 인천지사에서 근무하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름 햇볕으로 뜨겁게 달궈진 선체 내부에서의 작업, 손을 예닐 듯한 차가운 겨울철 야외 검사 등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놓치지 않는 검사원들의 철저한 책임감이 해양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항상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이 있기에 인천지사는 앞으로도 발전을 거듭해갈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지사의 멋진 성장을 지켜봐주세요!



인천지사 운항관리센터

소통과 협력, 배려와 존중으로 만들어가는 안전한 바다

인천지사 운항관리센터(이하 '운항관리센터')는 '고객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를 표방하며 최상의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규정과 절차를 바탕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는 운항관리센터의 크나큰 자랑이다.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운항관리센터, 박진규 차장이 이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규정과 절차만을 내세우며 딱딱하게 업무를 하기보다는 선주나 선장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과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합니다. 선사들과 운항관리센터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전예고제도 그 일환입니다. 다음날 기상 악화가 예상되면 오후 2시에 운항 사전 협의를 거쳐 운항 결정을 미리 합니다. 그러면 해운사는 여객선 예약 고객에게 미리 운항 정보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6시에 사업자들과 기상 상황을 확인하며 소통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운항관리센터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김민수 차장은 "법규 및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검사 과정에서 최대한 불편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운항을 위한 안내를 상세히 하는데요.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해양 안전이 더욱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66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운항관리센터는 앞으로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9



대외적인 소통을 잘하려면 대내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원활해야 한다. 운항관리센터 직원들은 자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업무를 공유하고, 토론과 토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일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직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인천지사 운항관리센터는 지난해 말 인천과 제주를 오가는 항로가 취항함에 따라 더욱 분주해졌다. 3월에는 영종도 삼목항에 운항관리센터를 개소해 고객 서비스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민수 차장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며 완벽하고 철저한 업무 수행을 강조했다.

"직원 모두가 철두철미한 자세로 사소한 결함 하나도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운항관리센터는 앞으로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지사 운항관리센터 전 직원들은 "한마음으로 해양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전했다. 이들의 힘찬 목소리와 눈빛에서 든든함이 느껴졌다. 🌐







# Cooperation

## 안전을 목표로,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 긴밀한 협력으로 성장 이룬 대부해운

바다는 우리 삶의 터전이자 자원의 보고이며,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원천이다. 이러한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섬과 육지를 잇는 선박일 것이다. 대부해운은 지난 25년 간 서해 곳곳을 오가며 주민들의 소중한 안전을 위한 교통수단이 되어주고 있다. 안전한 운항을 위해 인천지사 및 운항관리센터와의 긴밀하고 유대감 깊은 협력을 이어나가면서 말이다.

Text. 한울 Photo. 고인순

#### 안전한 선박 운항으로 고객의 편리성을 제고하다

1997년 대부고속훼리 1호를 건조해 해운업을 시작한 대부해운은 활기찬 서해안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 아래 25년 간 꾸준하게 성장을 이어왔다. 대부해운은 현재 대부고속페리호, 대부고속페리3호, 대부고속카페리7호, 나래호, 서해누리호, 덕적아일랜드호, 퍼스트퀵호 등을 운항하면서 육지와 서해안 15개 섬을 잇는 든든하고 안전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해운의 성장과 발전을 이끈 원동력에는 항상 고객을 최우선에 둔 경영이 있다. 대부해운은 회사가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에 발 벗고 나섰고, 무엇보다 선박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대부해운에서 공무 감독과 안전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최규현 부장은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한 치의 양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바다를 오가는 선박은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 적잖은 비용이 듭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되지만, 대부해운은 정비와 수리에 있어서는 아낌이 없습니다. 일 년마다 정기 검사를 반드시 진행하고, 출항 전 운항관리센터에서 안내하는 지시 사항을 꼭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대부해운의 선박들이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입니다.”

대부해운은 업무에 있어서 직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각자 맡은 업무를 소신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직원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배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덕분에 업무는 마치 톱니바퀴가 맞춰 돌아가듯 유기적으로 이뤄진다.

“저를 비롯해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매우 높습니다. 선장과 기장을 비롯하여 직원들 대부분이 20년이 넘는 베테랑들로 구성되었다는 점도 대부해운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회사에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방증일 겁니다.”

대부해운은 지난해 말 인천지역 세 개의 낙도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로 선정됐다. 낙도 보조항로는 정부가 직접 국고 여객선을 마련해





운항관리센터의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결함 하나도 꼼꼼하게 짚어주는데, 그럴 때면 진짜 든든합니다.

민간사업자에 운영을 맡기고, 결손액을 지원하는 형태의 항로를 말한다. 대부해운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풍·육도(서해누리호·105t)와 진리~울도(나래호·159t) 항로를 운항하고 있다. 대부해운은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낙도 보조항로이니만큼 선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대부해운은 자월면 섬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대부고속페리호 1일 2회차 운항을 결정하고, 주민들의 1일 생활권 보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천지사 및 운항관리센터와의 동지의식**

대부해운은 운항관리센터와 끈끈한 유대감을 자랑한다. 운항관리센터 사무실이 대부해운 사무실 바로 아래층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왕래도 잦다. “기상이 안 좋을 것 같다 싶으면 운항관리센터에서 전날 운항 결정을 미리 통보해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배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미리 운항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운항관리센터의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결함 하나도 꼼꼼하게 짚어주는데, 그럴 때면 진짜 든든합니다.” 최규현 부장은 몇 해 전 서해누리호에 있었던 일을 잊을 수 없다. 운항을 하던 배가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 멈춰 섰던 사건이다. “바다를 떠다니던 페그물에 엔진 두 쪽이 다 걸려 배가 꼼짝을 못했습니다. 바다에서 배가 멈추면 전복 등 다음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큼니다. 그 당시

운항관리센터에서 긴급으로 평택 해경에 협조 요청을 해서 저희를 구조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발 빠르게 대응해준 운항관리센터에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지난해 서해누리호와 나래호에 장애인 시설을 도입할 때도 운항관리센터에서 꼭 필요한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을 명확하게 설명해줘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최규현 부장은 “인천지사 검사원들의 선박 검사도 매우 만족한다”며 엄지를 세웠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보나’ 싶어서 솔직히 힘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FM’대로 검사를 하거든요. 검사원들이 철저하고 완벽한 검사를 통해 결함을 찾아내는 걸 보면서 검사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검사를 받다 보니 점점 적응이 되더군요. 또 검사원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해운사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검사를 할 때 선사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해주기 때문에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수로 치자면 100점 만점에 100점 이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최규현 부장은 “바다를 터전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동지 의식이 있다”고 설명한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선박의 안전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지 등을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란다. “업무적인 대화와 회의를 할 때, 때로는 의견이 달라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에 결국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인드는 우리 모두 같습니다!”

**최고의 서비스 위해 끝없는 노력 기울일 것**

코로나19로 인해 대부해운도 힘든 시간을 겪었다. 하지만 고객에게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매 순간 바다와 함께, 그리고 고객과 더불어 최선을 다해왔다.

대부해운은 창립 이래 ‘최고의 해운사가 되겠다’는 목표로 조금씩, 새롭게, 좋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서 말이다. “앞으로도 대부해운의 목표는 사고 없이 안전한 운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지사 및 운항관리센터와의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부해운을 비롯한 해운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잘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부해운도 인천지사 및 운항관리센터의 지침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섬 주민들이나 섬을 관광하는 여행객을 위해서 선박은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이다. 대부해운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하며, 고객이 먼저 찾는 선박 운항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그 과정에 있어 인천지사 및 운항관리센터와 함께하면서 해양 안전을 지키는 일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



# Safe Sea Fishing

## 안전한 바다낚시를 위한 낚시어선 이용 가이드



코로나19 이후 낚시가 비대면 여가활동으로 인기를 끌면서 해마다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따스한 봄 날씨에 많은 낚시꾼들이 바다로 향하고 있는데, 적절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해양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낚시어선 이용 시 선장과 이용객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알아본다.

Text. 엄세권 Reference. 해양수산부 <안전한 바다여행>



### 안전장비를 착용하세요

구명조끼와 안전화를 착용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20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화와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낚시용 조끼 중에는 반사띠, 비상용 호루라기 등 기능을 겸비한 구명조끼도 많다.



### 기상 정보를 확인하세요

바다낚시에 나서기 전 기상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바다는 날씨에 따라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어업에 종사해온 뱃사람들도 날씨가 좋지 않으면 어업에 나서지 않는다. 이미 낚시에 나섰어도 기상악화가 우려된다면 선장은 과감하게 철수를 제안해야 하며, 이용자들도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 승선 인원을 준수하세요

배에 타는 사람은 승선 인원이 최대 몇 명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바다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많은 인원이 어선에 함께 탑승하곤 하는데, 이에 따라 간혹 정원을 초과해 승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은 사전에 승선 인원을 꼭 확인해야 하며, 선장도 인원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승선 지시를 확인하고 승선하세요

배가 부두에 들어설 때 서둘러 승선하려다가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많다. 선체가 부두에 닿아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나며 그 사이로 떨어질 수도 있고, 선체가 전진 기어를 넣고 있을 때 급히 탑승을 시도하다가 실족할 수도 있다. 특히 초봄에는 이슬이나 결빙으로 선체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반드시 선장은 안전을 확보한 후 승선 지시를 하고, 이용객들은 선장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한다.

#### 바다 안전 지킴이, 해양정보 앱 '해로드'



'해로드'는 항법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형어선이나 레저선박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이다. 전자해도, 긴 급구조 요청과 바닷길 안내, 기상정보 제공 등 안전한 바다낚시를 위해 꼭 필요한 기능이 담겨 있으니 선장은 물론 모든 이용객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2014년 8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해로드 신고 기능으로 구조한 인원은 약 1,500명에 달한다. 배터리가 없으면 앱을 사용할 수 없으니 낚시에 나설 때 예비 배터리도 꼭 챙기도록 하자.



# S E A

# Q

# R I

## 해양 생태계의 비밀을 풀어가다 씨큐리움

바다는 여전히 그 끝과 깊이를 알기 어려운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다.

그 속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생태계가 존재한다.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 전문 국립박물관 '씨큐리움'에서는 매년 다양한 주제와 특색 있는 전시를 통해 해양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Text: 편집실 Photo: 박상봉 Photos Provided: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M

# U

### 표본으로 만나는 특별한 해양생물

2015년 4월에 설립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자원 전문 연구 및 전시, 교육기관이다. 해양생명자원의 확보와 관리,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해양생물 대국민 가치 확산 등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문을 연 씨큐리움은 바다(Sea)와 질문(Question), 공간(Rium)의 합성어로 바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며, 해답을 찾아가는 전시 교육의 공간이라는 의미다. 특히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수행하는 연구 활동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며 국민과 소통하는 해양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씨큐리움의 전시공간과 수장고에는 총 7,500여 점의 해양생물 표본이 있다. 길이 10m가 넘는 고래부터 먼지보다 작은 플랑크톤까지, 외형의 훼손 없이 살아있을 때의 형태 그대로를 간직한 표본을 만날 수 있다. 더불어 4층 '해양생물의 다양성' 전시실과 체험전시물인 인터랙티브미디어월, 3층 기획전시실과 국내 유일의 대형 해양포유류 골격전시, 2층 바다극장과 해양정보홀, 교육실, 카페테리아, 1층 어린이체험전시실과 바다뱀 연구소는 물론 4D 영상실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특히 씨큐리움에 가면 꼭 봐야 할 조형물로는 1층에 자리한 '생명의 탑'을 꼽는다. 높이 24.7m의 거대한 유리 구조물 안에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 서식하는 해조류와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등 4,200여 개의 표본을 전시했다. 해양생물 주권확보와 생물자원 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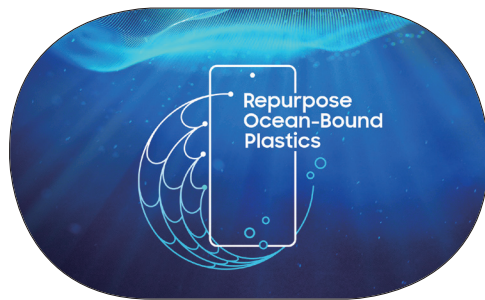
지구 생물의 80%는 바다에 살지만, 우리는 오직 1%만 알고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나머지 99%의 비밀을 풀기 위해 꾸준히 연구 중이다. 바다를 향한 끊임없는 호기심과 해양생물에 대한 궁금증을 채워줄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씨큐리움을 주목하자. 🌐

|      |   |
|------|---|
| 입장료  |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               |
| 관람시간 | 09:30~18:00<br>(입장 마감 17:00, 설날과 추석, 매주 월요일 휴무) |
| 문의   | 041-950-0600                                    |
| 위치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101번길 75                          |



# Fishing Net

## 바다를 지키는 기술, 페어망 리사이클링



### 01 페어망에서 첨단 IT 기기로 삼성전자 갤럭시 S22

삼성전자는 최근 한화컴파운드와의 협력을 통해 페어망을 재활용한 소재를 적용한 제품을 공개했다. 한화컴파운드는 폴리아미드로 제작된 페어망을 수집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배합기술을 통해 작은 알갱이 형태의 펠릿(Pellet)으로 양산했다. 이 재활용 소재를 활용해 '갤럭시 S22' 측면에 달린 볼륨 버튼 및 전원 버튼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키 브래킷과 S펜 커버, '갤럭시 북2 프로'의 터치패드 홀더 등에 적용했다.

### 02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섬유 아쿠아필 나일론 원사

페어망은 다양한 섬유로도 재탄생하고 있다. 노르웨이에 기반을 둔 농어업 폐기물 업체 '노피르(Nofir)'는 페어망을 수거해 이탈리아 원사 제조기업인 '아쿠아필(Aquafil)'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수거된 페어망은 세척 및 가공을 거쳐 나일론 원사 '에코닐(ECONYL)'로 재탄생해 옷과 양말, 신발 등 다양한 의류로 만들어진다. 아쿠아필에 따르면 페어망 1톤으로 약 2만 6,000개의 양말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 Recycling

쓰임을 다하고 바다에 버려지는 페어망은 한 해에 64만 톤이나 된다. 무분별하게 버려진 페어망은 이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범이 되었다. 이에 바다를 지키기 위해 페어망을 재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등장하고 있다. 페어망을 활용해 재탄생한 친환경 제품들을 소개한다.

Text. 엄세권 Photos Provided. 삼성전자 뉴스룸, 오르바이스텔라



### 03 동물과 환경을 생각하는 가방 오르바이스텔라

동물 가죽을 대체하는 소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비건 패션 브랜드 오르바이스텔라는 버려진 페어망을 재활용한 나일론 소재로 다양한 가방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가을 출시한 4종의 가방은 모두 국제 친환경 섬유 인증을 획득했다. 오르바이스텔라는 동물을 사랑하고 환경운동에 적극적인 MZ세대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물 친화를 넘어 환경친화적 브랜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04 소재부터 다른 친환경 자동차 BMW와 피스커, 포드

자동차 업계에서도 페어망을 재활용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페어망에서 뽑아낸 원사를 재활용하여 자동차 내장재로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독일 자동차 업체 BMW는 전기차 내부 바닥재를 페어망에서 뽑아낸 원사로 만들고 있으며, 미국 전기차 업체 피스커 역시 차량 카펫을 전부 페어망으로 만들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는 폐플라스틱 등 다양한 해양 쓰레기를 자동차 부품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 깨끗한 해양환경을 위한 선택, 친환경 선박은 무엇일까?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양 분야의 환경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국외 화물선은 물론, 국내 운항 여객 및 어선까지 친환경 선박의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선박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Text: 엄세권 Illust: 박지연

## 오염저감·고효율 선박

해양오염을 초래하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시키는 장치를 설치했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말한다. 해양오염 저감기술에는 항산화물 저감장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미세먼지 저감 필터,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등이 있으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는 선형설계기술, 고장력강 및 경량소재를 활용하는 신소재 설계기술, 마찰저항 저감기술, 운항효율 최적화기술,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등이 있다. 오염저감·고효율 선박은 규제에 대응은 가능하지만 친환경 에너지 추진 선박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여, 부가기술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 친환경 에너지 추진 선박

유해물질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한다. 현재 상용화된 선박 연료 가운데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가장 뛰어난 LNG, 액화석유가스인 LPG, 기존의 연료탱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각광받고 있는 메탄올,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암모니아, 탄소 배출과 공해가 없는 수소 등이 있다. 이밖에 바이오연료, 에탄올, 풍력, 태양열 등도 포함된다. 친환경 선박 가운데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가장 크고 태형선 건조, 수출 위주의 국내 조선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친환경 에너지 추진 선박이다.

## 전기 추진 선박

전기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이다. 우리나라 건조기술의 수준은 높으나 전기 인버터, 컨버터, 추진 전동기, 전력 제어모듈 등 핵심 부품은 아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독일, 핀란드 등에서는 대용량 전기 추진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용량 선회식 전기 추진기, 워터제트 등 부가기술의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용량 스마트 전기추진시스템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주로 연안선 등에 적용되는 기술로, 국내 조선산업에 파급효과는 작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연료전지 추진 선박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에서 발생한 전기 에너지를 연료전지에 담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지만 운항 거리가 짧고 상대적으로 긴 충전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단거리 운항을 중점으로 하는 연안 선박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운항선박 등에는 하이브리드 선박의 보조동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하이브리드 선박

연료와 전기 에너지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기존의 석유 연료와 함께 발전기, 배터리, 연료전지 등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등과 같은 유해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으면서도 운항 거리 및 경제성 등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2015년부터 배터리만으로 추진하는 연안선박을 운용하고 있으며, 장거리 운항용으로 기존 연료와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선박을 운용하고 있다.

### 친환경 선박이란?

친환경 에너지 또는 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거나 해양오염 저감 기술, 선박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을 탑재한 선박을 말한다. 선박이 운항할 때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의 유해물질이 배출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이러한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해 환경규제 강화에 나섰고, 이에 따라 전 세계 조선·해운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됐다. 2020년 1월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상한선을 3.5%에서 0.5%로 크게 낮췄으며, 2050년까지 해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마련했다.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한국형 친환경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힘쓰고 있다.





# Gardening Class



## 반려식물에게도 사랑이 필요해요 본사 직원들의 '가드닝 클래스' 체험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났다. 공기를 정화하고, 심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반려식물.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건 '식집사'의 몫이다. 봄을 맞아 반려식물을 데려오기로 결심한 KOMSA 직원들과 가드닝 클래스를 함께했다. 일상 속 즐거움을 발견하고, 편안한 소통까지 더한 의미 있는 시간을 공개한다.

Text. 최미혜 Photo. 고인순 Place. 보닉 세종점(BONIQ\_SEJONG)





### 트렌치 코트 4인방의 특별한 수업

이제 완전한 봄이다.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긴 하지만, 한낮에는 따뜻한 햇살이 스며드는 요즘, 본사 직원들이 특별한 체험에 나섰다. 바로 가드닝 클래스다. 가드닝 클래스는 식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를 배우는 수업으로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진행한다. 최근에는 반려식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더욱 각광받고 있다. 마치 미리 짠 듯 아이보리 컬러 트렌치 코트를 맞춰 입은 KOMSA 직원 네 명이 클래스 장소에 나타났다. 교통안전평가실 임미선 주임과 해양사고예방실 허윤숙 주임, 그리고 교통안전정책실 김지아 주임과 운영지원실 재무회계팀 양지원 주임은 각각 입사 동기라고 한다. 어쩌다 보니 입사 동기 두 팀의 만남이 된 오늘의 클래스, 잘 할 수 있을까? 어색함도 잠시, “어머, 어떻게 이렇게 옷을 맞춰 입었죠?”라는 양지원 주임의 말에 한바탕 웃음이 터졌고,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됐다.

이날 수업은 초보자를 위한 과정으로 반려식물로서 인기를 끌고 있는 몬스테라를 다뤘다. “몬스테라는 식물의 잎과 수형을 감상하는 관엽식물이에요. 열대지역이 원산지인데요. 예쁘고 큰 잎사귀를 갖고 있어 많은 분들이 찾죠. 관엽식물은 일주일 혹은 보름에 한 번 물을 주면 되기 때문에 키우기도 쉬워요.” 클래스의 강사로 나선 보닉 세종점 대표의 설명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식물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흙과 햇빛, 통풍, 물, 온도다. 특히 주의할 것은 햇빛, 아무리 열대지역이 원산지인 식물이라도 직사광선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식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은은한 빛을 쬐어야 한다. 이후 몬스테라의 성장조건과 식재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자 네 명의 본사 직원들은 두 눈을 반짝이며 점점 더 수업에 집중했다.

### 직렬은 달라도 우리는 KOMSA인!

드디어 몬스테라를 직접 만날 시간이다. 테이블 위에는



몬스테라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화분과 배수망, 흙, 난석, 마사토가 준비됐다. 아크릴 장갑을 끼고 실례는 마음으로 실습 시작! 모두에게 처음인 이 시간, 직원들은 여러 도구를 나눠 쓰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식물의 잎보기 위치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화분에 옮기기까지 모든 과정에 정성을 다하다 보니 어느새 훌쩍 시간이 지나갔다.

클래스의 마지막 순서는 이파리 닦기다. 식물은 잎을 통해 광합성을 하고, 숨을 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파리를 닦아줘야 한다. 몬스테라의 경우, 2주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잎을 닦아주면, 잎이 더 튼튼해지고, 푸릇푸릇하게 자란다. 정성스럽게 이파리를 닦던 김지아 주임이 “구멍이 있는 잎과 없는 잎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라고 묻자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나왔다. 넓은 잎을 가진 몬스테라는 아래에 있는 잎까지 골고루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위에 달린 잎에 구멍이 생긴다는 것. 서로를 배려해 성장한 결과다. 네 명의 직원들은 정말 신기하다며 짧은 탄성을 터뜨렸고, 더욱 정성스럽게 이파리를 닦았다. 허윤숙 주임이 “어떻게 닦았길래 그렇게 이파리가 깨끗해?”라고 묻자, 임미선 주임은 직접 이파리 닦기 시범을 선보였다. 이파리의 구석구석을 닦느라 집중한 직원들에게 “먼지만 닦아낸다고 생각하세요”라고 강사가 말하자,

66

다른 직렬 분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 좋았어요. 평소 제가 식물을 키우면 다 죽었었는데, 제대로 된 방법을 알게 되어 보람 있네요.

99

다시 한번 웃음이 터졌다. 가드닝 클래스를 함께하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간 본사 직원들. 봄 내음 가득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빠르게 시간이 흘러갔다. 실장님의 추천으로 클래스에 지원했다는 양지원 주임은 “다른 직렬 분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 좋았어요. 평소 제가 식물을 키우면 다 죽었었는데, 제대로 된 방법을 알게 되어 보람 있네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김지아 주임은

“수업 내내 즐거웠어요. 몬스테라 잎에 구멍이 있는 이유도 흥미로웠고요”라고 말하며, 두근두근 기억할 특별한 경험이라고 전했다. 가드닝 클래스에 대해 처음 알게 됐다는 허윤숙 주임은 “동료들과 친해지고 싶어 지원했어요. 서로 도와가며 체험하니 더 재미있고요. 오늘 사진 촬영한 것도 좋은 경험이었어요”라며 반려식물 동호회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마지막으로 임미선 주임은 “타 직렬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이렇게 식물을 직접 심어본 건 처음인데, 통풍이나 물주기 등 세세한 내용을 알게 되어 인상 깊었어요”라면서, 서로의 성장을 배려하는 몬스테라처럼 상대방을 배려하는 KOMSA 직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직렬도 팀도 다르지만 ‘반려식물’이라는 공통분모를 나눠 갖게 된 네 사람, 이 특별한 인연이 꾸준히 이어질길 기대해본다. 🌱

### 몬스테라 화분 갈이, 어렵지 않아요



#### 1 잎보기 위치 정하기

본인의 기준에서 가장 예뻐 보이는 방향으로 식물을 놓는다.



#### 2 화분에 배수망 깔기

화분 구멍에 맞게 배수망의 모서리를 잘라 바닥에 끼운다.



#### 3 화분의 제일 아래층에 난석 깔기

통풍과 배수에 좋은 난석을 화분 바닥에 골고루 뿌려준다.



#### 4 배합토 깔기

포트(농장에서 주는 검은 화분)에 담긴 몬스테라를 화분에 넣고 잎보기를 할 높이를 정한 다음 배합토를 만든다. 손끝으로 흙을 다져 빈 곳이 없도록 할 것.



#### 5 새 화분에 옮기기

한 손은 몬스테라의 가장 단단한 부분을 잡고, 다른 손으로 포트를 살짝 주물러 몬스테라를 뺀 다음, 흙의 상태와 벌레 유무를 확인해 새 화분에 옮긴다. 뿌리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흙을 잘 눌러준다.



#### 6 마사토로 덮기

흙이 보이지 않도록 마사토로 덮어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 New Start Dangjin

## 발 빠른 대응으로 안전한 바닷길 지켜갈 것!

안전한 바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빠른 대응은 필수다. 그동안 근거리 관할 기관의 부재로 고충을 겪었던 경기 서남권 및 충남지역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KOMSA가 나섰다. 해당 지역 어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줄 당진지사 개소식 현장을 소개한다.

Text. 최미혜 Photo. 전재천



### 어민들의 염원으로 이뤄낸 당진지사 설립

3월 24일, 이른 오전부터 당진항지원센터 3층이 분주하다. 지난 3월 초, 당진지사가 새롭게 문을 연 이후, 한 달여 만에 공식적인 개소식이 진행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당진지사 정용근 지사장과 직원들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사 내부를 정돈하며 귀빈을 모실 준비를 마쳤다. KOMSA의 19번째 지사로 문을 연 당진지사는 경기 서남권과 충남지역 어업인들의 염원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그동안 해당 지역은 인천지사와 태안지사, 보령지사가 나눠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관할구역이 넓은 반면, 검사 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선박검사와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어민들의 불편사항이 점차 늘어가자 당진시와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KOMSA에 지사 설립을 요청했다. 이에 KOMSA는 지난해 11월 말, 당진지사 설립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3월 초부터 당진항지원센터 1층과 3층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개소식을 앞두고 김경석 KOMSA 이사장이 도착했다. 김 이사장은 지사 내부를 둘러보며 직원들을 격려했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챙기며 지역 어민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당진지사가 되길 당부했다. 이윽고 당진지사 개소에 힘을 실었던 수많은 내외빈이 모습을 드러냈다. 김홍장 당진시장, 홍상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서정원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각 기관장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덕담을 주고 받았고, 현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 안전한 바닷길을 책임질 굳건한 다짐

이날 개소식은 당진지사 권영철 차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내외빈 소개와 국민의례, 해양수산발전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에 대한 묵념, 당진지사 설립 경과보고로 이어졌다. 당진지사는 당진항지원센터 3층에 154.7㎡ 규모로 신설됐다. 충청남도 당진시와 아산시, 천안시, 충청북도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괴산군, 진천군, 경기도 평택시와 안성시 등 7개시 4개군을 관할하며, 1,000여 척의 어선과 일반선의 선박검사, 2,000여 척의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을 담당한다. 기존에는 원거리로 인해 선박검사에 7~10일이 소요됐지만, 당진지사가 신설된 후에는 2~3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정용근 당진지사장은 “지사 설립을 위해 애써주신 어기구 의원님, 김홍장 시장님, 홍상표 청장님, 서정원 서장님 등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관할 지역 어민들과 현지인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

지역 어민과 선주, 선사들에게 최고의 선박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며 당진지사 운영에 대한 다짐을 전했다. 이어 김경석 이사장은 “당진지사는 선박검사 소요시간 단축을 통해 어업인의 조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선박검사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해양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라면서, 유관기관 및 어촌 관계자들이 KOMSA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보완하고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기대하며

개소식 중반에는 귀빈들의 축사가 진행됐다. 당진지사 개소를 위해 노력해온 김홍장 당진시장이 축사의 포문을 열었다.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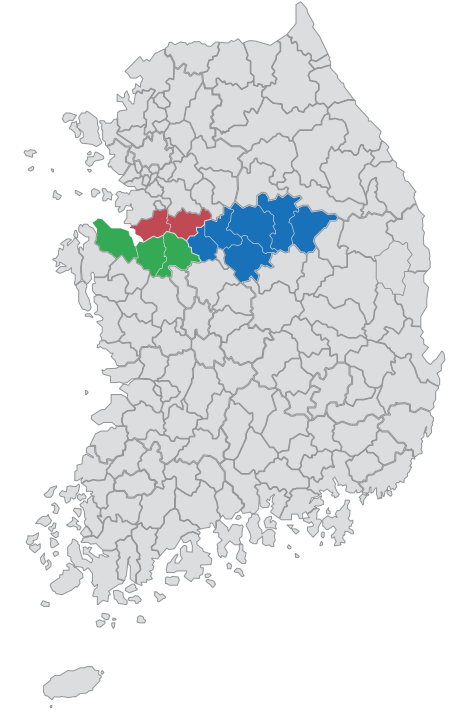
앞으로 관할 지역 어민들과 현지인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 지역 어민과 선주, 선사들에게 최고의 선박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99

“당진시 17만 시민과 함께 축하를 전합니다. 예로부터 당진시는 충청남도 서해안 최북단에 자리를 잡고 당나라와 교역을 했던 항구도시입니다. 삼교호부터 시작되는 85km의 해안선과 10여 개의 항구 및 포구를 바탕으로 수산업과 해운업이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다 없는 당진의 발전은 결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당진지사가 안전한 바닷길을 만드는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바다의 안전을 지켜온 서정원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수많은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당진지사가 개소해 지역 해양 안전에 이바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KOMSA와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위험요인 사전발굴 및 개선 등 지속적인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진지사 개소를 계기로 해양 안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며,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축사 이후에는 현판 제막식이 진행됐다. 흰 장갑을 착용한 귀빈들이 현판 앞에 모였고, 하나 둘 셋 하는 신호와 함께 현판을 덮고 있는 줄을 힘껏 당겼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당진지사’가 새겨진 현판을 보며 모두가 박수를 쳤고, 이로써 모든 행사가 마무리됐다. 해양교통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바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KOMSA. 경기 서남권과 충남지역에서 KOMSA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당진지사의 힘찬 출발을 응원한다. 🌊

### 당진지사 관할구역



### 당진지사 설립 개요

|                |  |
|----------------|--|
| <b>위치</b>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2길 79-33, 당진항지원센터                             |
| <b>지사명칭/정원</b> | 당진지사 / 총 4명(검사직 3, 실무직 1)                                      |
| <b>주요업무</b>    | 선박(어선)검사 등 정부대행업무  |
| <b>관할구역</b>    | 충청남도 천안시·당진시·아산시,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단양군·진천군·음성군·괴산군, 경기도 평택시·안성시 일원 |



### Mini Interview



### 정용근 당진지사 지사장

관할 지역 어민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20년 넘게 공단에 근무하면서 여러 번의 지사 개소를 진행하고 경험했지만, 이번처럼 뜻깊고 보람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과 지원이 있었는데요. 유관기관의 기관장님들을 비롯해 당진지사 신설을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승인받기까지 애써주신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진지사의 구성원인 권영철 차장, 연보라 주임, 김나연 주임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당진지사 개소 직후 지역 어민들과 선사들, 항구와 포구 해경파출소 직원들이 찾아와 지사 개소를 축하하며, 지역 어민들의 숙원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당진지사는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유대, 지사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직접 발로 뛰며 어민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올해 당진지사는 지역 어민들, 선사들과의 소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부권역의 새내기 지사답게 새로운 틀을 만들고, 고객 만족 노후를 개발하여 공단의 현장 안전 관리 고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중소형 선박 안전, 이제 우리에게 맡기세요!

##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스마트한 해양 안전 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는 KOMSA가 주요 항구도시인 인천과 목포에 새로운 거점을 준비 중이다. 바로 국내 최초 중소형 선박 대상 종합 안전관리 시설인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다.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한 KOMSA의 노력을 살펴본다.

Text. 편집실



서남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조감도

###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바다를 위해

해양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내의 수많은 유관기관이 힘을 모으고 있지만, 해양사고와 인명피해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1만 3,687건, 인명피해는 2,489명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18년 2,671건, 2019년 2,971건, 2020년 3,156건으로 최근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해양사고 중 낚시어선과 어선 등 소형선박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그중 어선의 해양사고 비중은 2020년 기준 66.5%로 집계됐다. 이에 KOMSA는 소형 선박의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첨단 시설 및 장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과 선박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 효율적인 선박 검사와 안전 점검 기대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는 해양사고 취약 선박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선박 및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중소형 선박에 특화해 건립되는 지원센터다. 지난 2018년, 구축 기획연구를 시작해 올해 1월 18일과 25일에 대표적인 항구도시인 인천과 목포에서 첫 삽을 떴다. 인천은 남항

부근 7,900㎡(2,389평) 일대, 목포는 북항 부근 7,115㎡(2,152평) 일대에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인천과 목포에 각각 101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최신 선박 검사 및 안전 점검 장비와 선박 종사자 교육 시설 등을 갖추고, 2023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현재 선박검사는 검사원이 건조 시점과 선종 등에 따라 조선소와 항구 및 포구 등 선박이 정박한 곳을 방문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검사 일정이나 동선에 따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정밀 검사에도 한계가 있었다. 추후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가 문을 열면, 중소형 선박 검사의 효율성과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소형 선박의 안전 점검은 물론 선박종사자의 안전교육과 무상 안전점검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되어 지역 맞춤형 해양 안전 인프라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KOMSA는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구축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왔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했으며, 공사현장에는 관리자급 직원을 공사관리인으로 배치하는 등 무사고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해양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해양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KOMSA의 행보를 기대해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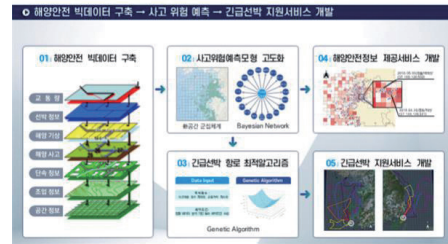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조감도



# KOMSA NEWS

2022 Spring Vol. 49

## 빅데이터로 긴급선박 최적 경로 구축



지난 1월 4일, 공단은 지난해 개발한 연안해역 사고위험도 예측 모델을 고도화해, 국내 최초로 '긴급선박 운영지원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5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1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공단은 해양사고 밀도에 기반한 군집 특성을 가진 단위 공간을 구축하고, 해양사고·기상·선박 항적 등과 같은 해양교통 데이터를 융합했다. 향후 이 서비스는 해양경찰 경비함정과 국가어업지도선 등 긴급선박의 가장 효율적인 배치 및 최적 순찰 경로를 지원함으로써 상시 해양안전 관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이렇게 고도화한 해양사고 예측 모형을 「연안해역 사고위험도 예측확률 현황」 자료집으로 제작해 공단 홈페이지(www.komsa.or.kr)에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스마트 해양교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도 개시해 실시간 기상정보와 연계한 해양사고 예보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 선박검사, 시간은 줄이고 품질은 높인다



공단은 변화하는 대외환경 흐름에 대응하고 선박검사체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선박검사 자체검사규정, 이른바 'KOMSA Code'를 개발한다. 지난해부터 공단은 선박검사 관련 법령·고시에서 정한 시설·기술·검사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상세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반을 운영했으며, 지난해 말 산·학·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회'를 열어 KOMSA Code 개발안을 심의했다. 올해에는 기술검토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KOMSA Code 2개 기준에 대해 정부 승인을 거친 후 시행할 예정으로, 2024년까지 총 44개의 KOMSA Code 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공단은 40여 년간 축적한 선박검사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 노하우와 신기술 동향, 선박검사 관련 민간·정부 간 질의·회신 사항과 정부 지시공문, 국제협약과 타 선급 규칙, 한국산업표준(KS) 규격 등을 반영해 KOMSA Code를 개발한다. KOMSA Code 개발이 완료되면, 고객에게 고품질의 검사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신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 봄철 수상레저기구 사전진단 및 해양안전 캠페인 진행



공단은 봄철 행락객 및 레저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3월 19일, 군산시 비응항 해양레포츠센터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대상 출항 전 사전진단 서비스 및 해양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출항 전 사전진단 서비스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군산해양경찰서와 군산 관내 선외기 정비업체, 전기 정비업체가 함께 참여했다. 공단은 열화상 카메라와 축전지 복합 진단 장비를 활용해 사고 다발 부위인 선외기 엔진과 추진축계 설비를 집중 점검했으며, 소화기와 축전지 보호 단자 등 안전 물품을 지원했다. 또한, 조난 위치 자동신고장치 '해로드 세이버'를 배부하고, 수상레저기구의 주요 해양사고 원인인 기관손상과 추진축계 사고 사례 교육, 해양사고 예방 홍보물품을 전달하는 등 해양안전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앞으로 공단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운항이 많은 목포, 여수, 보령, 태안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진단서비스와 해양안전캠페인을 확대할 예정이다.

# KOMSA NETWORK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바다를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해양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세종 본사 안내

|              |              |         |
|--------------|--------------|---------|
| 044) 330-이사장 | T. 2200~2    | F. 2352 |
| ESG혁신실       | T. 2410      | F. 2466 |
| 교육훈련센터       | T. 2470      | F. 2479 |
| 기획경영본부장      | T. 2203      | F. 2352 |
| 전략기획실        | T. 2210      | F. 2353 |
| 인재경영실        | T. 2220      | F. 2354 |
| 운영지원실        | T. 2230/2380 | F. 2357 |
| 윤리준법실        | T. 2295      | F. 2299 |
| 교통안전본부장      | T. 2208      | F. 2352 |
| 교통안전정책실      | T. 2300      | F. 2309 |
| 교통안전평가실      | T. 2310      | F. 2319 |
| 해양사고예방실      | T. 2340      | F. 2339 |
| 검사안전본부장      | T. 2204      | F. 2352 |
| 검사관리실        | T. 2260      | F. 2358 |
| 검사기준실        | T. 2270      | F. 2359 |
| 도면승인실        | T. 2280      | F. 2363 |
| 기술사업실        | T. 2434      | F. 2440 |
| 안전운항본부장      | T. 2206      | F. 2352 |
| 운항관리실        | T. 2370      | F. 2379 |
| 운항제도실        | T. 2381      | F. 2379 |
| 기술연구원장       | T. 2205      | F. 2352 |
| 스마트안전연구실     | T. 2450      | F. 2461 |
| 해양환경연구실      | T. 2250      | F. 2365 |
| 어선연구실        | T. 2570      | F. 2579 |
| 노동조합         | T. 2360      | F. 2367 |
| 감사실          | T. 2320      | F. 2364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고객의 현장 애로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검사제도 관련 불편 사항이나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검사기준실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27(아름동)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실  
TEL. 044-330-2270~9/2268  
FAX. 044-330-2359  
E-mail. it@komsa.or.kr

## 지사 안내

|   |  |   |
|---|--|---|
| 인천지사(032)<br>T. 764-6181~3 F. 764-6184<br>인천 운항관리센터(032)<br>T. 889-3945~54<br>F. 889-4061 | 당진지사(041)<br>T. 358-8697~8<br>F. 358-8641  | 서울지사(02)<br>T. 2671-7838~9 F. 2671-7841   |
| 태안지사(041)<br>T. 674-5447~8 F. 674-5449  | 세종본사(044)<br>T. 330-2380<br>F. 330-2357  | 속초지사(033)<br>T. 635-5394 F. 631-6002<br>동해지사(033)<br>T. 535-8091, 8093 F. 535-8094<br>동해 운항관리센터(033)<br>T. 534-8437~9 F. 534-8440   |
| 보령지사(041)<br>T. 933-3981, 5863 F. 932-1855<br>보령 운항관리센터(041)<br>T. 931-9083~6 F. 931-9087 | 전북지사(063)<br>T. 452-8187~8 F. 452-8189<br>전북 운항관리센터(063)<br>T. 471-7486~9 F. 471-7490        | 경북지사(054)<br>T. 246-5394~5 F. 246-5396<br>경북 운항관리센터(054)<br>T. 256-9784~7 F. 256-9788   |
| 목포지사(061)<br>T. 245-6142~4 F. 245-6145<br>목포 운항관리센터(061)<br>T. 247-9457~66<br>F. 247-9594 | 완도지사(061)<br>T. 554-1474, 1480<br>F. 554-0069<br>완도 운항관리센터(061)<br>T. 555-4023~8 F. 555-4029 | 울산지사(052)<br>T. 261-6124~34 F. 265-5394<br>부산지사(051)<br>T. 638-6221~3 F. 638-6226<br>부산 운항관리센터(051)<br>T. 469-8425~6 F. 469-8427  |
| 고흥지사(061)<br>T. 843-4-5394<br>F. 844-1369   | 고흥 운항관리센터(061)<br>T. 844-9012~3<br>F. 844-9014   | 사천지사(055)<br>T. 833-5394, 4998 F. 832-1484<br>창원지사(055)<br>T. 222/246-6774 F. 246-7838<br>통영지사(055)<br>T. 645-6011 F. 644-8661<br>통영 운항관리센터(055)<br>T. 649-8430~6 F. 649-8438 |
|   | 제주지사(064)<br>T. 721-7401~2 F. 702-7404<br>제주 운항관리센터(064)<br>T. 759-9780~3 F. 759-9786        |   |

## 본사로 오시는 길





초성 퀴즈

# <해안선> 독자를 위해 준비한 초성 퀴즈를 공개합니다!

아래 문장에 들어간 초성을 보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ㄷㅈㅈㅈㅈ

KOMSA의 19번째 지사로 문을 연 'ㄷㅈㅈㅈㅈ'는  
경기 서남권과 충남지역 어업인들의 염원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Hint. <해안선> 볼호 42p '좁은 KOMSA'를 확인하세요!

- 참여기간 2022년 4월 29일(금) ~ 5월 27(금)
- 참여방법 QR코드로 접속, 정답 제출
- 당첨인원 15명(랜덤 추첨)
- 당첨선물 CU편의점 상품권 1만원 권(1명), 5천원 권(14명)
- 선물발송 참여기간 경과 후 일주일 내 당첨자 개별 발송(미당첨자는 별도 공지 없음)



초성 퀴즈를 풀고, 하단에 <해안선> 후기를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올라갑니다!



### <해안선> 웹진 구독하세요~

4월 29일, <해안선> 웹진을 오픈합니다! 이제는 웹과 모바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소식을 확인하세요. QR코드로 접속해 구독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신세계 이마트 상품권(1만원 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깨끗한  
해양환경  
구현

Environment  
친환경 선박 개발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듭니다.

빅데이터 기반  
해양교통안전  
진단

# 우리는 E애 S쓰 G지, 해양 안전을 위해!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기 위해  
ESG(애쓰지)하다!

- 체계적인 점검과 빈틈없는 해양안전 체계 구축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애쓰지.
-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선박 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으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애쓰지.
-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해양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지.
- 대국민 해양교통안전교육으로 해양안전문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지.

바다  
내비게이션  
(e-Nav) 구축

표준어선형  
제도 도입

Social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고객만족을 드립니다.

Governance  
효율적인 조직개편으로  
현장 맞춤 책임경영 시스템을  
강화해갑니다

사회적 가치  
경영 실현

ESG(애쓰지)하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만나보세요.

